

당신의 첫 걸음을 기억하세요  
 ‘걷기, 에 대하여

《당신의 차와 이혼하라》(2004)는 제목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해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우리 두 발을 대신해주는 자동차는 우리 삶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걷는다’는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요.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바퀴 덕분에 걷기는 삶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저 또한 4년 전 《걷기의 역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노레 발자크 《걷기 이론》 중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인간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 놓은 이래로 아무도 자기가 왜 걷는지, 어떻게 걷는지, 전에도 걸은 적이 있는지, 더 잘 걸을 수 없는지, 걸으면 무슨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말이다. 이런 질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철학적, 심리적, 정치적 체계와 연결된다.’

《걷기, 인간과 세상과의 대화》에서 보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한 지도 6백년이 나 지났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탈것에 두 다리를 맡기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걷기를 대체해주는 훌륭한 기계들 때문에 걷기는 오히려 불손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망이 깔린 세상에서 걷는다는 것은 남보다 뒤쳐지는 우려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염려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일상 속에 소리 없이 존재해 왔던 걷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더 유별나다고 느껴지는 건 저 뿐만은 아니겠지요. 《걷기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지의 행각은 죽을 때까지 깨뜨리지 못한 채 걸음을 멈추었을 거라 유추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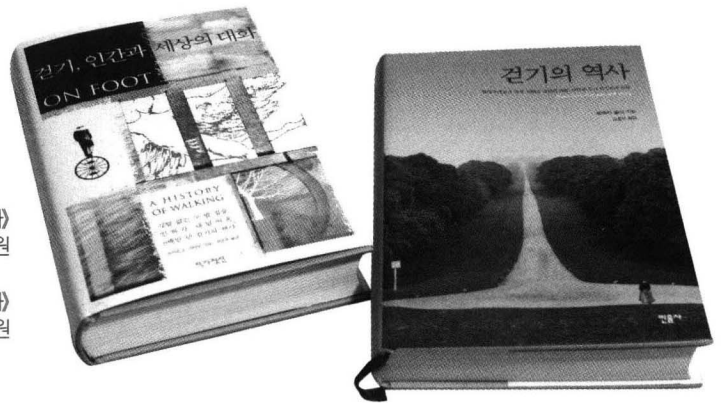
19세기 서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성숙과 함께 생겨난 변화는 걷기와 보행자를 바꾸어 놓았는데, 이때부터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인도(trottoirs)’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지요. 인도의 등장은 군중의 개념을 낳았지요.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시내 중심부로 모여들게 한 것은 그들의 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나의 다리와 함께 작동한다.” 루소처럼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걷기를 단순히 걷는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학시간에 배웠던 소요학과, 영어로 ‘peripetetic’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먼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사유과 걷기를 연결시키는 그리스인들이나 소요학과뿐만 아니라 철학자, 문학가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홉스, 칸트, 비트겐슈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니체... 이들은 식사 후 거닐면서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걷기를 신성화 한 듯 보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걸으라고 강요받습니다. 어제를 밟아왔기 때문에 오늘을, 내일을

《걷기의 역사》  
레베카 슬넛 지음 | 김정아 옮김 | 민음사 | 478쪽 | 값 15,000원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조지프A. 아마토 지음 | 김승욱 옮김 | 작가정신 | 568쪽 | 값 25,000원



《걷기예찬》  
다비드 르 브로통 지음 | 김화영 옮김 | 현대문학 | 274쪽 | 값 11,000원

《어제를 향해 걷다》  
아마오 산세이 지음 | 최성현 옮김 | 조화로운삶 | 296쪽 | 값 9,800원

걸을 수 있겠지요. 내일을 향해 걷는 것은 자연스런 학습효과로 연습이 필요 없을 테지만, 어제를 향해 걷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어제를 향해 걷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최근에 나온 아마오 산세이의 산문집 제목이 《어제를 향해 걷다》더군요. 아마오 산세이는 서른아홉에 야쿠리라는 작은 섬에 들어갑니다. 간혹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걷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속합니다. 작은 섬에서 손수 농사를 짓고,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고, 한가롭게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홉 명의 아이를 키웠고,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 그도 섬에서 발을 물었지요. 그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오 산세이는 비록 원시세계처럼 살았지만 현대사회 도시인들보다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비드 르 브로통은 '걷기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는 《걷기 예찬》에서 걷기를 '세계를 느끼는 관능 예로의 초대'라고 예로틱하게 표현했지요. 생각해보니 걷기는

땅과 접촉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처를 향유하기 보다는 세상 밖으로 두 발을 내딛는 나그네로 변모시키지요. 이때 여객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일 겁니다.

걷기라는 행동은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걷기는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고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것. 걷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려면 이 점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위대한 사람들의 걷기 방식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걷고 싶으나 걸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순간 호호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윤희 기자